

건강을 위한 투쟁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세상을 향한 투쟁이다



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PHA4 Declaration) 방글라데시, 사바르, 2018년 11월 15~19일.

이 선언은 아밋 센굽타(Amit Sengupta)의 기억과 정신에서 영감을 받아 작성되었다. 아밋이 보여준 더 공정하고 건강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위한 투쟁에 대한 헌신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헌신은 계속해서 민중건강운동 활동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우리의 투쟁들

전 세계 73개국에서 온 1,400명이 넘는 우리 건강활동가들은 건강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재확인하기 위해 케이프타운 총회 후 6년이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 사바르(Savar)에서 만났다. 아밋 센굽타의 말처럼, 건강을 위한 투쟁은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이다.

불행하게도 건강 악화와 불평등의 근원적 원인이 지속되고 있고, 되돌이킬 수 없기에 [민중건강헌장\(2000\)](#)과 [쿠엔카 선언\(2005\)](#)에 제시된 비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 근원적 원인은 가부장제, 카스트주의, 인종차별주의, 종교근본주의, 장애인차별주의, 트랜스포비아와 이성애 중심주의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다. 문제는 개인주의, 인간중심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개발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강화된다. 전 세계의 공동체들은 한편으로는 점점 토지, 수자원, 생계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조되는 군사화, 폭



력과 억압에 직면하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을 매우 증가시켰고, 사적 이익의 막대한 확대와 초국적 경영자들과 주주 계급을 만들어 냈다. 그들의 부와 권력은 형평, 정의, 그리고 지구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기업 자본주의의 지배적 이익은 체계적으로 우리 정부의 주권을 약화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권리와 특권을 사적 이해관계에 양보하게 만든다. 기업들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건잡을 수 없이 파괴하고, 엄청난 양의 유독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 생활방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새로 등장하는 그리고 만성적인 갈등, 이주, 기후변화, 프라이버시 위협의 복잡성은 매일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이 모든 것은, 부정한 국제 그리고 국내 경제와 무역정책에 의해 유지되며,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평등한 개발 패러다임을 촉진하고 모든 이를 위한 건강(health for all)의 실현을 심각하게 지연시키는 복잡한 결정요인의 전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우리는 이런 불편한 배경에 반대하며 우리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우리의 투쟁은 인간의 삶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모델과 더 많은 연대, 공감, 형평성, 인류애를 향해 있다.

건강 위기는 자본주의 모델의 위기이다

고소득국가들은 초국적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초국적 자본주의 계급의 이익을 위해 현대 글로벌 자본주의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촉진하고 있다. 일방적인 ‘무역과 투자(trade and investment)’ 협정의 네트워크 덕에 중저소득 국가 정부들은 이런 정책들을 수용하거나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국가의 정책은 민중의 건강을 결정짓는 사회적 조건은커녕, 포괄적 보건의료 접근이나 재원에 도달하는 데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정책들은 건강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을 악화시키고, 계속해서 보건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심각하게 손상한다.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한 나라의 정부가 공중보건에 대한 책무를 회피하고, 민영화와 사적 보험 체제를 도입하도록 독려한다.

민중건강운동의 대안적 비전 : 형평, 생태학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건강

우리의 비전은 국가 간, 그리고 국가 내에서 형평이 달성되고 모두의 건강이 실현되는 세상이다. 우리는 건강이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 정의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 우리

는 타인과 환경에 대한 공감, 연대 그리고 존중이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젠더, 인종, 카스트, 민족성, 장애, 섹슈얼리티, 종교, 직업, 시민권에 기반을 둔 차별과 억압이 없는 세상이자 모든 커뮤니티의 인권과 권력강화, 건강이 모든 자연적 존재의 존엄과 권리와 함께 존중되고 고취되는 세상이다.

우리는 정부, 국제 금융기구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UN 조직들이 초국적 기업과 그들의 대리인이 아닌 민중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는 그들이 집행할 수 있는 법률과 규제로 건강과 환경에 관련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민중과 자연을 위협하고 해롭게 하고 죽이는 기업들에 대한 면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차별적이고, 권한을 빼앗고, 민영화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보편적이고, 맥락에 적절하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이며 평등한 공중보건체계를 원한다. 현존하는 권력구조의 급진적인 교체를 포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해 적절한 활동을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체계를 원한다.

우리의 선언

우리가 2012년 ‘케이프타운 행동 강령(Cape Town Call to Action)’에서 단언한 바와 같이, 어떠한 변화도 사람들과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힘의 구축을 통한 사람들의 동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중건강운동 활동가들은 건강권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운동을 사람들의 땅, 물, 생계,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 그리고 초국적 기업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공격에 대항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다른 사회 운동들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의 거버넌스를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젠더 평등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민중건강운동을 강화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다른 조직, 네트워크, 민중 운동과의 연계와 연대를 확대함으로써, 또한 국가, 지역, 지구적 수준에서 새로운, 특히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 서클을 만들고 기존 국가 서클을 강화할 것을 선언한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다양성이 더 잘 대표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우리의 작업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6개의 서로 다른 주제 및 행동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열려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와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전통적 지식은 건강에 대한 지배적 체계모니로서 생의학적 접근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권력강화적인 저항의 형태로서 중요하다.



젠더 정의와 건강

민중건강운동은 소속단위 내 모든 서클들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하는(cross-cutting) 문제로 젠더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촉진한다. 우리는 모든 민중건강운동의 논의, 행사, 집회에서 비이분법적(non-binary) 젠더 분석과 이해를 통합함으로써 남성/여성 이분법을 넘어 LGBTQI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퀴어, 인터섹스)와 트랜스젠더 커뮤니티를 포함하고자 한다.

민중건강운동은 젠더 억압이 다른 억압 체계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안녕(wellbeing)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고 믿는다. 비록 그것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다르게 그리고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젠더 불평등, 차별, 폭력의 경험은 보편적이다. 민중건강운동은 여성들 외에도 아이들, 비규범적인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의 다른 희생자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폭력에 대한 취약성은 장애, 결혼 여부, 인종, 카스트, 종교, 민족성, 직업, 분쟁 상황,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악화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젠더 정의와 건강은 상호 강화적(mutually reinforcing)이며, 두 가지 모두, 모든 사람의 건강(health for all)이라는 목표의 실현에 핵심적이다. 우리는 국내 정책 및 법률과 함께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며 모든 사람의 건강(health for all) 실현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거시경제 정책과 현재의 발전 패러다임의 젠더화된 함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젠더 정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 여성, 소녀, LGBTQI 커뮤니티, 인종 및 카스트 소수자, 장애인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면서 보건 서비스와 성 및 재생산 보건의료를 고취한다.
- 지역(local), 지역(regional), 지구적 수준에서 건강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불평등 및 불공정한 사회, 경제, 정치적 체계에 반대하는 행동을 촉진하고 지속한다.
- 젠더 공정한 건강정책과 책무성에 대한 지구적 옹호와 행동을 위해 연구, 증언, 사례 연구, 서로 다른 지역의 경험을 통한 근거를 통합한다.
- 확인된 젠더 정의와 건강상의 도전과 우려에 대해 여성 단체, 보건 단체, 연합, 네트워크, 민중운동, 캠페인, 이익 단체와의 연계와 연대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 성 및 재생산 건강권을 약화시키는 지구적 의제(예, ‘전방위 언론통제 정책(Global Gag Rule)’)를 감시하고 저항한다.
- 국제민중건강대학(IPHU) 및 기타 과정을 통해 젠더 정의와 건강에 대한 특히 젊은 세대의 이해와 역량을 동원하고 구축한다.



환경 및 생태계 건강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최소한의 책무성을 통한 이윤 극대화’에 대한 지배적 초점은 과소비, 지속불가능한 생활방식, 오염을 야기하는 기술과 산업을 촉진한다. 몇 가지 예만 들더라도, 삼림과 수산 자원의 과다 채취, 채굴 작업의 확산, 세계 시장을 위한 현대적 농업의 확대는 비가역적으로 토양의 질, 지하수 매장량,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발전주의적 비전은 분명히 광범위한 환경 파괴, 그리고 심각한 토양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 발생(독성 화학물질과 살충제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을 포함)의 원인이며,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이러한 오염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력은 종종 사회의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under-privileged) 부문으로부터 나온다. 기업들은 이러한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법과 정책을 지속해서 무시하면서, 그들을 고도로 위험한 작업장에 노출시키고 있다.

생태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건강은 자연 전체의 건강이라는 비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 채굴 산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저항하는 지구적 캠페인을 전개한다.
- 지구적 채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직들을 지원하고, 민중 운동인 토지권, 환경권, 인권운동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 환경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활동가들의 범죄화, 탄압, 사법 살인을 규탄한다.
- 환경에 해롭지 않고 건강한 생태계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촉진한다.
-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생산 체계를 촉진하는 작업 모형을 지지한다.
- 조직 및 비조직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한 작업장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권리 그룹을 지원한다.

식량과 식량 주권

민중건강운동은 우리의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불공정한 식량 체계가 건강 악화의 결정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영양불량의 삼중 부담과 비감염성 질환의 전 세계적 유행에서 이는 더욱 명백하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양 부족과 과잉 모두의 혼란 원인은 식품 생산, 가공, 제조, 유통, 무역통상과 관련된 현재의 관행이 식량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식량 체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이득을 많이 얻는 사람들 간 권



력의 차이 역시 관련이 있다. 식음료 회사의 규제되지 않은 침투와 가공, 초가공 식품의 공격적인 마케팅은 영양불량과 근본적인 식량 불안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씨앗에서부터 접시까지’ 공평하고, 공정하며 식품과 적절한 영양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기반한 식량 체계를 만들라.
- 식품과 영양의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등 식품과 영양 이슈를 적절하게 정치화하라.
- UN 기구와 선택된 NGO들이 채택한 영양 확산 이니셔티브(Scaling Up Nutrition, SUN) 사례와 같이,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포함하여 식량과 금융 시스템 사이의 부정적인 유대, 그리고 현재의 다중 이해관계자 '솔루션'의 결점에 대해 인식하라.
- 점점 커지는 초국가적 식품 산업의 권력에 저항하라.
- 공정한 식량 체계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영양에 대한 기술적이고 개인화된 시각에 저항하라. 식량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민중건강운동과 농생태학 운동 사이의 다리를 만들라.
- 농업 관련 산업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에 대항하여 식품, 물, 토양에 해로운 화학물질(agrotoxic products)과 살충제가 사용되는 것을 알리고 방지하라.

무역과 건강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 국가는 지역적 혹은 양자 간 무역과 투자 협정을 이미 체결했거나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이 협정들은 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경제적 통합 협정으로, 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지적 재산권에 관한 극단적 보호, 규제 조화, 당사국 정부의 규제로부터 다국적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는 포괄적인 보건의료와 사람들의 건강을 형성하는 사회적 조건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윤보다 건강을 우선시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 신자유주의 체제를 더욱 확장하고 강화하는 무역 및 투자 협정의 교섭을 중단하고, 이 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기존 협정을 파기한다.
-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문명화와 기업의 이윤보다 좋은 삶에 기초하며, 중저소득 국가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positive discrimination)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를 지향한다.

- 국가 주권에 기반하며 질, 안전성, 적정 가격,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보장하도록 의약품 규제 제도를 개혁한다.

공정한 보건의료 시스템

민중건강운동은 모든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약속을 되풀이하며, 공정한 건강 결과를 목표로 한다. 이는 사회, 경제, 무역, 환경, 정치를 아우르는 건강 결정요인, 그리고 국가 내, 국가 간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질의 불공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 전 지구적 건강 위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고, 자원을 적게 쓰며, 질이 떨어지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유병률과 사망률을 초래하고 있다. 민중건강운동은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이 뿌리 깊게 젠더화되어 있고, 카스트주의적이며 인종주의적 제도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 정보와 치료에 대한 접근에 큰 장벽이 되는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 그리고 불평등을 강화한다. 젠더는 보건의료 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위치와 경험을 결정하기도 한다.

민중건강운동은 또한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한다는 명분으로 보건의료와 보험 제도 시행을 영리화하는 전 세계적 추세를 개탄한다. 이는 건강의 개인화와 상업화를 강화한다. 건강 영역에서 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공공서비스의 외주화가 실패한다는 근거는 압도적이며, 이는 건강 형평성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추세는 사람들의 강렬한 저항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알마아타 선언에서 정의된 일차보건의료에 합당하게 ‘공적 재원을 통해 공적으로 제공되는 공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편적 보건의료 시스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라. 이용 시점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일차보건의료를 중점에 둔 보편적 공공의료 시스템은 형평성을 촉진하고 건강권을 실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이다.
- 보건의료의 영리화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신자유주의 구조 체계를 드러내는 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들에서 공공재정보험과 영리화, 공공-민간파트너십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라.
- 의료 영리화에 대한 투쟁과 저항을 문서화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일차보건의료 조

직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들을 활용하라.

-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다른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전 세계 지역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업 감시 이니셔티브를 확립하라.
- 더 잘 설계된 프로그램과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적절한 보수를 통해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고 사회 변화의 주체이자 보건의료체계의 확대 노동자(extension workers)인 일선 노동자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라.
-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핵심 역할을 강조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라.
- 적절한 보수, 사회 보장과 고용 조건을 포함하여, 보건의료체계와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 조건을 촉진하라. 비공식적이고 불규칙한 형태의 업무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사이 관련성을 강조하라.
-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지지하고,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권리 투쟁을 진보적인 노동조합과 결합하라.

전쟁과 분쟁(총돌), 점령과 강제이주.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제국주의적 열망과 함께, 이윤에 대한 끝없는 갈망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과 불안정을 초래하고, 빈곤과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 정책, 정치적 개입, 무기 거래, 마약 거래,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자원 채굴로 모든 나라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의 거대한 운동을 촉진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력 충돌, 인종 청소, 개발 프로젝트, 토지 점령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이주는 오늘날의 현실이며, 그 씨앗은 흔히 신자유주의의 불평등과 정책에 놓여 있다. 사실,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경제는 지역의 경제 이니셔티브와 시스템을 약화하고, 이것은 대체로 추방과 사회적 혼란(social dislocation)의 중요한 근본 원인이다.

많은 사람이 강제로 외국으로 이주하면서 시민권적 기본권(basic rights of citizenship)을 잃는다. 심지어 국가 내에서의 이주조차도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이주가 전체 인구집단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경험은 다면적이고 종종 정신 건강뿐 아니라 성과 재생산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민중건강운동은 전쟁, 점령, 군국화의 건강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을 고발하고, 인권을 존중



하지 않는 이주와 이주 정책의 건강 영향을 강조한다. 우리는 군과 안보 산업이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분쟁(충돌)의 지속적인 원인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인간의 고통과 세계 최악의 환경 오염유발자이자 탄소 배출자 중 하나라고 맹렬히 비난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공정한 정책, 분쟁 해결, 평화 구축, 무장해제, 점령 종료, 안전하고 자유로운 민중의 이동을 지지하도록 국제기구를 압박하라.
- 난민에게 즉각적인 구호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역과 국제 시민사회 단체, 인도주의 단체, 그리고 보건의료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라.
- 난민들에게 응급 영양, 쉼터, 의복,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관련 지방 정부에 압력을 가하라.
- 국경 간 이주와 관련해 해당 국가에 다자간 압력을 가해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엔 같은 세계기구와 관련 단체, 네트워크를 동원하라.
- 이주민들과 난민들의 건강권 유지를 보장하라.
- 납세자의 돈으로 군사연구개발을 중단하는 캠페인을 벌이라.

우리의 민중건강운동 구축

각각의 주제에 따라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전략적 파트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글로벌 비전과 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집합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민중건강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캠페인과 행동 전략을 위한 사회적 동원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훈련을 통해 연구, 분석, 활동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는 여성, 농민, 일선 노동자, 원주민 공동체, 청년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단체, 사회 운동과 연대를 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안적 문화와 대안적 제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이것만이 인류의 미래와 지구에 대한 희망이다. 여기에는 위험한 환경에서 너무 자주 국가 억압의 표적이 되는 우리 운동의 구성원들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

우리, 민중건강운동은 이 선언을 결의한다.



한국 민중건강운동 블로그: <http://phmovement.or.kr/>

한국 민중건강운동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g/PHMKorea/>

한국 민중건강운동 트위터: @PHM_korea

한국 민중건강운동 이메일: phmkorea@gmail.com